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 플러스

북한교회와 선교 - 김태환목사

신앙의 유산

버티면하나님이이기에하신다 - 방우석은퇴장로

구역식탁

다시 영은교회로! - 백성임집사



www.youngeun.or.kr

9 600424 840427



“어디서든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꽃은
어디서든 핍니다.

의지만 있다면
노력이 더해진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꽃은
어디서든 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글·사진 | 서현이 집사



'맛나는 교회' 공개녹화

월간 동행 영은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6월 7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옥

윤정림 이숙경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리디자인 김경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 『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 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 어디서든 피는 꽃 서현이 집사
- 04 **생명의 말씀** | 열정을 잇아간 일상의 유혹, 신앙 사춘기 이승구 목사
-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봉사는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통로 이은희 집사
- 10 **동행플러스** | 북한교회와 선교 김태환 목사
- 13 **구역식탁** | 다시 영은교회로! 백성임 집사
- 15 **신앙의 유산** |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방우석 은퇴장로
- 18 **소식&나눔** | 영은 어울림캠프, 행복을 더하다 김혜경G 성도
 - | 더누림 공동체기도캠프 이정현
 - | 빛을 비추는 다음 세대! 김찬영 전도사
 - |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 간다 오신원 안수집사
 - | 은퇴권사회 산상기도회 서선이 은퇴권사
 - | 늘푸른학교 야외 학습 백정란 권사
 - | 향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김명희 기자
 - | 제26회 영등포노회장기 체육대회 최정태 안수집사
 - | 중보기도자학교 수료 박선영 성도
- 29 **청년마당** |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전플러스 문희민 청년
 - | 더욱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 구민지 청년
- 31 **선교현장 속으로** | 대마도 선교보고 박영철·김강미 선교사
- 33 **슬기로운 교회생활** | 은혜의 문을 여는 심방 가이드 신요한 목사
- 34 **생활노트** | 매년 한 달 해의 살기를 실천하는 특별한 자녀교육 양슬기 집사
- 36 **뒷표지** | CBS 맛나는 교회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열정을 앗아간 일상의 유혹, 신앙 사춘기 [히5:13-14]



이승구 담임목사

사춘기는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던 시기를 지나 본인만의 잣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사춘기에 접어들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타인의 사소한 지적에도 예민해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조언조차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는 단순히 혼란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까닭 없이 마음이 식어버리고 이전처럼 믿어지지 않는, 바로 그때가 ‘신앙 사춘기’입니다. 부모의 신앙, 전통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배운 대로 받아들였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 믿음이 정말 나의 것인가?” 질문합니다. 신앙 사춘기도 육신의 사춘기처럼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의

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남의 신앙’에서 ‘내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 사춘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 사춘기를 넘어 성숙으로



1) 경험하기!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5:13)

‘젓을 먹는 어린 아이’는 다른 사람이 떠먹여 주는 은혜만 소비하는 수동적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에만 반응하고 죄



설교 영상보기

의 지적이나 헌신의 말씀에는 마음을 다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미숙한 확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믿는가’ 하는 회의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 사춘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내적 신호이자 더 깊은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단단한 신앙으로 자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길들여지다’입니다.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태도를 길들이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면 단순히 고민에 머물지 말고, 그 질문을 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떠먹여 주는 말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말

씀 앞에 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해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젖을 먹는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즉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삶으로 나아가갈 때 열정을 잇아간 일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2) 훈련하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5:14)

‘젖’은 신앙의 기초적 원리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달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반면 ‘단단한 음식’은 복음의 깊은 진리, 십자가의 고난,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까지 포함합니다. 소화하기 힘들지만, 영적 근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나를 격려하는 말씀 뿐 아니라, 나의 위선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결단을 요구하는 ‘불편한 말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당장 입에 쓰고 마음을 아프

게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가까이 씹어 삼킵니다. 또한 삶에 닥친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성장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또한 일상이 주는 적당한 풍요와 안일함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불편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단함을 ‘씹는 과정’을 훈련하십시오. 불편한 말씀을 피하지 말고, 내 삶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서도 망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이 생길 것입니다.



3) 분별하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4)

신앙 사춘기에 터져 나오는 수많은 의문과 비판적 시각은 사실 ‘나의 지각’이 깨어나고 있다

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을 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각으로 깨달은 것을 삶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땀 흘리는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메말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열정이 사그라져도 말씀 앞에 앉는 것, 즉 ‘지각’으로 판단하여 ‘의지’로 몸을 움직이는 반복 훈련이 연단입니다.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분별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면 영적 지각이 단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민을 품고 ‘말씀의 체육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작은 유혹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상의 소소한 유혹을 거절하는 그 ‘한 번의 연습’이 쌓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장성한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신앙 사춘기 통과하기



경험



훈련



분별

신앙 사춘기에는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와 질문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사춘기는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신앙 사춘기를 통과하는 세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태도를 길들이도록 내어드리는 **경험**을 하십시오. 불편한 말씀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하십시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반복하여 **분별**하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훈련하고, 분별할 때 자랍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일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봉사는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통로



이은희 집사

주일 아침에 배우는 은혜와 감사

나의 주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큰딸과 나란히 교회로 향한다. 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발을 맞추는 이 동행은 어느새 내게 한 주의 가장 맑은 기도가 된다. 분주한 낮에는 나누지 못한 말들이 아침 공기 속에서는 조용히 피어난다. 딸과 함께 1부 예배 찬양대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일에 가깝다. 누구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길 위에서 나는 늘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녀를 한 길 위에 세워 함께 견게 하신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이 새벽은 수고이기 전에 선물이고, 습관이기 전에 은혜다.

돌아보면 내 신앙도 이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할아버지 몰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향하던 그 길은 어린 나에게 작은 모험과도 같았다. 교회로 향하는 길 위에 퍼지는 맑은 종소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초대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를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세월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길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놓여 있었던 것 같다.

서울에 올라와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며 세례 때 받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온 시간도 결국은 그 조용한 종소리를 지키는 일이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묵상하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내 하루의 뼈대가 되었다. 특히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말씀(빌 4:6-7)은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평안으로 이어짐을 깨닫게 한다.

봉사,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현재 임마누엘 찬양대 총무로, 회계실 부회계로, 새가족을 맞이하는 바나바 사역으로 섬기게 된 것도 처음부터 거창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다. 주위의 따뜻한 권면에 자연스럽게 봉사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특히 회계실 봉사는 직장 업무와 연결되어, 바나바 사역은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편안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다.

섬김은 내 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방식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특히 새가족을 맞이할 때 그런 마음을 더 깊이 느낀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미소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조심스럽던 발걸음이 점점 익숙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봉사를 하며 내가 크게 얻은 것은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의 기쁨이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숨결이, 함께 섬기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느껴진다.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비우는 일 같지만, 실

은 그 비워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는 일에 가깝다.

신앙은 혼자 지켜가기보다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 자라난다고 생각한다.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한 분들께 봉사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주일 아침 딸과 함께 걷는 길은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다. 찬양대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지 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믿음의 시간을 다시 밟아보는 길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손에서 딸의 손으로 이어진 이 조용한 동행 속에서, 신앙이란 결국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배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따뜻한 고백은 어찌면 거창한 말보다도,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이 한 걸음일지 모른다.

“봉사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 따뜻한 시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북한교회와 선교



김태환 목사 1)
(북한 탈북인 선교사)

북한의 거짓교회와 진정한 교회

6.25를 앞두고 북한교회와 선교 통일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봅니다. 북한교회라 하면 형식적으로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매일 개방하는 교회 아니고 북한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교회를 찾을 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으로, 보위부원들을 시켜서 그때그때 찬양대를 운영하게 하고 기타 성직자로 행세하게 하는 형식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외국인들을 눈속임하여 북한도 교회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변명하는 거짓교회입니다. 진정한 북한교회는 북한의 사사로운 여행자들이 중국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개인이나 가족 정도의 비밀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진정한 북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서로에 대한 감시 체계상 여러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사사로운 여행자라고 할 수 있

는 계층은 북한 중상위 계층이기에 현재 북한의 교회도 중상위 계층의 개인 중심으로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 민주 통일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를 절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자매와 헤어진 이산가족들, 그중에서도 특히 평강공주들입니다.



평양 봉수교회

1) 김태환 목사는 영은교회 출신으로 2005년부터 약 20년간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탈북인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였다. 현재는 한국에서 원격 선교사역 중이다.

평강공주들

‘평강공주들’이란 약 30년 전부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려 중국의 벽촌 시골에서 노예와 같이 감시를 받으며 농사를 지어온 북한의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저희는 ‘무식하고 가난한 중국 사람들’과 ‘똑똑하고 총명한 북한 여성들’을 비교하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중국 국적 없이 불법 체류자로서 언제 붙들려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강공주들이 중국에 약 20~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서 10% 정도가 탈북하여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 여성들은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은 불안한 신분, 가난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보온달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잘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인구정책이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바뀌며 이 아이들이 정식으로 호적을 얻게 됐습니다.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

는 평강공주는 관할 마을에 한해서 임시 거류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거주를 묵인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호적이 생김으로써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벽촌 시골에는 학교도 없고, 학교가 있는 도시로 보내자니 기숙사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작은 액수의 도움이라도 준다면 학업을 계속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평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편부 가정에 있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북송되어 버려진 고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나 고모 등 친척 집에 얹혀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북송되는 와중에 친구에게 아이만 부탁해 아이 엄마의 친구가 길러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턱없이 많지만, 이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도 돕지 못하고,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이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했으나 우리(김태환&임정신 선교사)의 정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도움도 같이 끊어졌습니다. 오로지 일본의 한 민간 교회만이 계속해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중국 공안의 눈치를 보며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천만 명의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국가로 쓰시기 위해 국민의 숫자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번영에 취하여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를 잊은 것은 아닌지, 애써 못 본체하며 통일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통일 한국을 꿈꾸며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휴전상태이고, 이 상태가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녘 동포가 잔악한 공산 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가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를 그리며 중국의 동북 3성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는 공산 정권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유민주주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 정권이라고 뿔뿔이 말하지 않는 현실에서 절망감도 들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에 아무리 마귀의 횡포가 심해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우리의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여 그 속에서 희생된 애국자들과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처럼 우리의 한국전쟁 기념일을 통해 우리에게 ‘통일 한국’을 꿈꾸게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백성임 집사
(662구역)

다시 영은교회로!

영은교회에서 나고 자란 믿음

백성임 집사는 어린 시절을 영은교회에서 보냈다. 영은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중·고등부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학교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과 ‘영프렌’이란 모임을 결성해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찬양대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백 집사가 중등부 때 ‘파란가락의 밤’이란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그때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라영설 선생님이 지휘하던 중등부 찬양대는 기독교 방송곡에 초대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 시절 영은교회 이용남 담임목사님의 주도로 영등포시장 근처에 있던 경원극장에서 영등포 지역민들을 위한 선교 음악회가 열렸다. 그 날 중등부 찬양대도 참석해 찬양했는데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특히 함께 공연했던 장애인 선교단 ‘오암원’의 무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찬양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연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후 아버지의 직장 이전으로 인천으로 이사하며 교회를 옮기게 됐다.

인천에서 두 교회에 다니다

인천에서는 양문교회를 다녔다. 이 교회에서 2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었고, 식당 봉사도 꾸준히 했다. 남편은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예배 시간에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교회에 다녔다. 이후 양문교회 부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백 집사 가족도 그 교회로 옮겼다. 그렇게 개척교회에 10년을 다녔다. 초기에는 교회가 부흥했지만, 나중에는 젊은 이들이 점차 빠져나갔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개척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 직분도 받았던 남편은 교회가 예고도 없이 문을 닫자 크게 상처를 받았다. 그 후로는 어느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백 집사의 딸은 이 시기에 쌍둥이 남매를 낳았고, 백 집사가 손주들을 지금껏 돌보고 있다.

영은교회로 돌아오다

2022년에 있었던 영은교회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백 집사는 영은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다. 집사님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데는 ‘영프렌’ 친구들의 역할이 컸다. 교회학교 때 친구들이 결혼 후 오랜 세월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영은교회로 모이면서 ‘영프렌’을 결성했다. 친구들은 매 주일 3부 예배를 드린 후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한 주일 살았던 이야기를 공유한다. 최근에는 ‘영프렌’ 친구들이 함께 여전도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백 집사는 현재 662구역(인천시 남동구) 구역장이다. 6교구는 새 가족으로 구성된 교구다. 1~5교구와는 달리 6교구는 나이별로 구역을 나눈다(635구역은 35~40세, 662구역은 60세 이후 등). 백 집사 근처에 사는 딸(배이슬)도 635구역 구역장이다. 배이슬 구역장은 유아 세례자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잠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다. 그 무렵 천주교 신자였던 사위(홍성현)가 쌍둥이 자녀(서준, 서하)에게도 아내와 같은 기독교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머니가 다니는 영은교회에 가자!”라고 먼저 권했다. 지금은 백 집사와 딸 부부, 아이들 모두가 영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다. 서준이와 서하는 유아부를 거쳐 유치부, 유년부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 두 아이 모두

유년부 찬양대원이다.

백 집사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도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 열명을 구제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제할 방법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으며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49살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10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 현재는 70~80% 회복된 상태다. 백 집사에게는 ‘영은교회에 좀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영은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고 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남편과 아들이 다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백 집사는 오늘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그날을 위해 기도한다.



백성임 집사 가족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방우석 은퇴장로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

방우석 은퇴장로는 1947년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수곡리의 정겨운 농촌 마을에서 부친 방연봉 선생과 모친 황순희 여사의 삼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가훈인 ‘성실’을 붙들고 성장한 그는 22살이 되던 1969년,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자 서울로 상경했다.

상경 초기 신길동을 거쳐 양평동 일대에 정착한 장로님이 7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아내 박기선 은퇴권사와 믿음의 가정을 꾸린 것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평범한 가정으로 살아가던 1980년 무렵, 장로님에게 예기치 못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허리 통증을 고치려 동네에서 맞은 침이 원인이 되어 척추뼈가 썩어 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장로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해 고통받았고, 마침내 서울대학교병원 척추

관위자인 석세일 박사를 통해 ‘척추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 놀랍게도 수술 당일, 병문안을 온 당숙모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장로님은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게 됐다.

기적의 1,000 발자국과 추수감사절의 첫 예배

수술 후 7개월간 석고 깁스에 갇혀 지내며 근육이 다 빠져나간 쇠약한 몸이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다며 재수술을 권유했다. 그때 장로님은 의사에게 체력을 보충할 ‘100일의 기한’을 청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기에 아내 박기선 권사는 ‘추수감사주일에 남편이 제 발로 교회에 가게 해달라’라며 눈물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장로님 역시 방 안에 줄을 매어놓고 붙잡으며 피가 나도록 걷기 연습을 이어갔다. 발바닥 살이 너무 얇아져 발을 디딜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인 약

1,000 발자국을 혼자 힘으로 걷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연습했다.

마침내 1980년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장로님은 지팡이도 없이 영은교회 2층 본당까지 혼자 힘으로 걸어 올라가 맨 뒷자리에서 3부 예배를 드렸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이후 병원 검사에서 까맣게 비어 있던 척추 부위가 기적처럼 단단하게 붙었다는 판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신용으로 일궈낸 사업과 13년의 연단

1989년 와셔(Washer)²⁾ 공장을 시작했으나 사업 초기에 부도를 맞아 큰 빛을 지게 됐다. 그러나 장로님은 ‘돈은 없어도 신용만 지키면 산다’라는 확고한 철학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앞서 1985년에도 이웃인 ‘은경이 할머니’를 통해 파산 직전 재기의 기적을 체험했던 장로님은 이번에도 낙심하지 않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일하며 모든 빛을 정직하게 청산했다. 특별한 기술적 배경이 없었음에도 획기적인 ‘1타 공정’ 금형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일터를 훗날 아들

방삼일 안수집사에게 신앙의 가업으로 고스란히 승계했다.

40년 찬양의 헌신, 주님의 일꾼

1982년부터 시작한 찬양대 봉사는 2023년 ‘40년 근속상’이라는 귀한 열매로 이어졌다. 음영부장 시절에는 ‘솔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찬양의 영적·음악적 질을 한 차원 높였으며, 차량관리부, 봉사부, 선교부 등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아낌없이 땀방울을 쏟아냈다. 특히 봉사부 시절에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마음을 모아 매년 김장 김치를 3천 포기씩 담그며 성도들을 섬겼다.

신앙 초기에 이재호 집사를 비롯한 남선교회 신앙 선배들로부터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임을 배웠다. 장로님은 1998년 안수집사 임직, 2009년 장로 장립을 거쳐 2017년 은퇴하기까지 연령별 남선교회 회장을 두루 역임하며 교회 봉사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다.



태안반도 기름 제거 봉사 활동

2) 나사 조임에 사용하는 부품

대를 잇는 신앙 유산과 영원한 새벽 제단

장로님의 가장 큰 자산은 자녀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진 ‘신앙의 이음’이다. 아들 방삼일 안수집사와 며느리 유희정 집사, 딸 방미경 집사와 사위 이승민 집사 등 가족이 영은교회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동역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위에게 “1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여 집사 직분을 받은 후에 결혼하라”라는 단호한 신앙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마침내 온 가족 복음화의 문을 열었다.

장로님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성구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이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를 때마다 장로님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백한다.



앞줄: 박기선 권사, 방우석 장로
 뒷줄: 방삼일 안수집사, 유희정 집사, 방미경 집사, 이승민 집사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모진 질병과 경제적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온 방우석 장로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편의 간증이다. 과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장로님 부부는 하나님께 ‘평생 새벽 제단을 쌓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서원을 묵묵히 지켜왔다. 비록 아내 박기선 권사가 12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 현재는 부부가 함께 새벽 성전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장로님 부부는 고단한 삶을 버티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 모든 힘이 바로 그 ‘치유의 기억’과 여전히 타오르는 ‘새벽 제단’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터뷰·글 | 김창원 기자



고아원 봉사 활동



김혜경G 성도

영은 어울림캠프, 행복을 더하다

2026년 5월 1일(금), 유난히 맑고 푸르던 날, 강화 그레이스힐 수련원에서 1박 2일간 어울림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서른 가정의 식구들 120명과 캠프를 위해 수고하신 스텝들을 포함해 총 147명의 영은 가족들이 모였다.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도로에서 두세 시간을 더 보낸 뒤에야 도착할 수 있었지만,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했다.

여는 예배 후 첫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체육대

회는 어색했던 마음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 주었다. 팀을 나누어 응원하고 뛰다 보니, 낯설었던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서로 부대끼며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날 저녁 찬양 집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청년 시절 이후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동이 가슴속에서 다시 차올랐다. 특히 아이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온몸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다.

둘째 날에는 가정예배 강의를 들으며 전날의 깨달음을 어떻게 삶에 녹여낼지 배웠다. 해보지 않았기에 어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가정예배를 부담 없이,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연습도 했다. 그 시간을 통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완성된다.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리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얻은 이 벅찬 행복을 이제 우리 집 거실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더누림 공동체 기도 캠프 “의인과 악인의 다른 삶”



이정현 (더누림)

더누림 공동체 기도 캠프가 지난 5월 10~11일, 1박 2일간 남양주 수동스테이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도 캠프에는 김민식 목사님과 7명의 더누림 성도를 포함한 총 8명이 모였다. 첫째 날에는 바비큐 파티와 레크리에이션으로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더누림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김민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시편 92편 7-15절을 함께 읽은 후 “의인과 악인의 다른 삶”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내용을 간략히 나누고자 한다.

세상에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종종 마주한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왜 드러나지 않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거짓이 없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보응하신다.

김민식 목사님께서서는 악인의 번성이 비록 화려하고 눈부실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며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더해가는 영혼교회와 더누림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더욱 기도하자고 하셨다. 말씀을 맺은 후, 다 함께 합심해 기도했다.

이번 기도 캠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로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금의 내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두에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빛을 비추는 다음 세대!

- 영은 스타 선수권대회 -



김찬영 전도사(유년부)

지난 5월 13일 주일, 영은교회 유년부·초등부·소년부는 각 부서 예배실과 6층 체육관에서 함께 모여 「영은 스타 선수권대회」라는 주제로 전도잔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뛰고 웃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 친구 21명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부서별 활동과 다양한 게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 어울렸고, 처음 온 친구들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참여했다. 특별히 레크리에이션은 청년부 황민철 형제가 진행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고 협력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교사와 교역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긴 손길들이 모여, 모든 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교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선수권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이며, 교회학교의 미래이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뛰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함께 기도와 섬김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가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 간다”

부흥사경회, 다섯 가지 메시지로 본 교회의 길



오신원 안수집사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부흥사경회가 있었다. 이번 부흥사경회는 포항제일교회 박영오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다. 다섯 번의 예배를 통해 ‘중심, 돌봄, 공감, 기도, 희망’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선포됐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중심: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삼상 16:1-12)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통해, 성도 각자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든가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둘째 날 새벽예배에는 “돌봄: 새벽 세 시의 하나님”(시 121:1-8)이라는 제하의 말씀이 있었다. ‘새벽 세 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도를 지키신다는 뜻이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집회에서는

“공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4:1-14)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진정한 공감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성령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셋째 날 새벽예배에서는 “기도: 솔직한 기도, 성숙한 기도”(눅 22:39-46)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날 저녁예배에서는 “희망: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룻 4:13-17)라는 말씀이 선포됐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설 때 세상 가운데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서선이 은퇴권사

은퇴권사 산상기도회

4월 21일 화요일, 은퇴권사회 산상기도회가 영은 설악센터에서 있었다. 은퇴권사 56명은 오전 9시 교회에서 설악센터로 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 도심을 벗어나며 펼쳐진 풍경은 봄의 향기로 가득했다. 연녹색의 나뭇잎들 사이로 비친 봄볕의 따뜻함이 차창을 통해 우리 마음에 밝게 내려앉는 듯했다.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악센터에 도착했다.

센터에 도착한 후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다. 회장 이환예 권사의 인도, 한상욱 권사의 기도에 이어, 최광주 목사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목사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실패 없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

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쳤다. 이어 교회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두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즐겁게 점심을 하고 차를 마셨다. 이번 기도회에서 평소에 조금 어렵게 느꼈던 선배 권사들과 함께하며, 평생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 애쓰신 그분들께 새삼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이제 우리들도 그 모습을 조용히 따르며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몇 날 며칠을 마음 졸여 애쓰고 수고하신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정란 권사
(늘푸른학교 교사)

봄날의 힐링 여정

- 늘푸른학교 야외 학습 -

계절의 여왕 5월의 싱그러움 속에서 영은교회 늘푸른학교 학생 99명과 교사 11명(총 110명)이 속초 일대로 행복한 야외 학습을 다녀왔다. 화창하고 좋은 날씨 속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자연을 만끽하며, 식사를 맛나게 하고 꿀잠을 자며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왔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꿈같은 1박 2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첫째 날 오전 8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인 늘푸른학교 학생들은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기도 후 강원도로 출발했다. 국내 최장 길이의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고(편도 약 20분), 해발 1,458m의 발왕산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경험을 하며 산꼭대기의 환상적인 경치를 가슴 가득 품었다.

숙소인 양양 그랑베이호텔에 도착해 최광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수요예배를 드렸다. 호텔 뷔페로 저녁 식사한 후 어스름해진 낙산 해변을

산책했다. 바닷가를 거닐며 나는 대화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졌다. 더블 침대 2개가 있는 넓고 깨끗한 방(2인 1실)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하루의 피로를 씻었다.

둘째 날 방문한 설악산 자생식물원에서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싱그러움 꽃과 나무 사잇길과 시원한 계곡을 따라 걸었다. 삼삼오오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꼈던 힐링 시간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속초의 유명한 바다정원 카페도 들렀다. 그곳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마신 차 한 잔의 여유는 잊지 못할 것이다.

산과 바다 그리고 들에서 오감으로 자연을 만끽했던 그 시간이 “너무 너무 좋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늘푸른학교의 봄날 여행이었다.



항존직 선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 장로 2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4명 피택 -

5월 17일 주일 오후예배 후 본당에서 2026년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는 2년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항존직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항상(恒) 있어야(存) 할 직분이라는 뜻이다. 항존직은 주님 안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워지기에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뒤따른다.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장로 7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5명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장로 2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4명이 선출됐다.

817명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는 장로 0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8명이 선출됐다. 743명이 참가한 2차

투표에서는 장로 2명, 안수집사 4명, 권사 11명이 추가 선출됐다. 마지막 3차 투표는 총 521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장로는 추가 선출된 자가 없었고, 안수집사 1명, 권사 5명이 추가 선출됐다. 3차에 걸친 투표 결과, 장로 2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4명이 선출됐다. 피택자는 아래와 같다.

글 | 김명희 기자

장로 피택자



최정태



이현준

안수집사 피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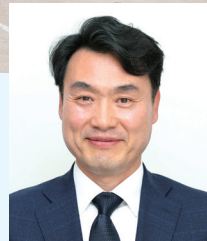


권사 피택자





제26회 영등포노회장기 체육대회



최정태 안수집사

제26회 영등포노회장기 체육대회가 5월 16일 국회 둔치운동장에서 열렸다. 5월의 화사한 봄날에 영등포노회 산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후 개회식과 함께 체육대회를 시작했다.

12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은교회 선수들은 미니축구, 족구, 배구, 훌라후프 릴레이, 투호, 장애물 릴레이, 왕제기차기 등 8개 종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승리를 위해 열정과 최선을 다하며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빛나고 아름다웠다. 승패가 결정됐을 때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화목한 교제를 나눴다.

이번 대회는 양평동교회가 1위, 영은교회가 2위, 당일교회가 3위를 차지하며 경기를 마쳤다.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연합회 주도로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두 달 전부터 각 종목의 감독과 선수를 선발하고 종합 1위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다.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훈련했던 과정이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넓은 한강 운동장에서 모두가 함께 가슴 졸이며 소리 높여 응원하면서, 선수들보다 더 경기에 집중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다. 점심시간에 교회 식구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함께 웃으며 교제했던 기억을 품고 내년 체육대회를 지금부터 기대하고 기다려 본다.



중보기도자학교 수료



박선영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제9기 중보기도자학교」 교육 과정이 3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8주간 있었다.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장미애 목사님이 수업을 진행했으며, 총 22명이 수료했다.

2026년 장년신앙교육 ‘말씀 요리사’ 전단지를 받아 들고 내용을 살펴보던 중, 유독 ‘중보기도자학교’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를 정말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마치 내 마음을 아신 듯 교회에서는 8주 과정의 기도 강좌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하면서 영은교회에 새롭게 정착한 성도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중보기도자학교가 어떤 의미를 지닌 과정인지 잘 알지 못했다. 단순히 8주간 배우고 마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여해 보니 이 과정은 영은교회 ‘300 기도용사’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자 사명을 품은 공동체 훈련이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처음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약간 부담이 느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참여해 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 조로 배정되었고, 나는 2조에 속하게 되었다.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 아직 서로의 이름도 낯설게 느껴지던 첫 만남의 어색함이 기억난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매주 식사를 같이하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서먹함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기도’라는 같은 목적을 품고 모인 사람들이라서 빠르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낀다.

강의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가 아니겠는가? 얼마 전 새 기도 노트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써 내려가 보려고 한다.



청년부 새내기들의 '비전플러스'



문희민 (청년1부)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전플러스 - 청년부 비전플러스 2차 -

‘비전플러스’란 고등부를 졸업하고 20살이 된 새내기 청년들이 청년부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1부 임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교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비전플러스 1차는 새내기 단합대회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을왕리에서 진행됐다. 5월 9일 토요일에 진행된 비전플러스 2차는 영등포 파티룸에서 청년1부 진윤규 목사님과 1부 임원 및 새내기 총 17명이 함께했다.

비전플러스를 통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임원들의 따뜻한 섬김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보드게임과 웃음 가득한 레크리에이션, 함께 부르는 노래방 시간, 상반기 동안의 청년부 적응기와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단순히 즐기는 시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년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비전플러스를 통해 앞으로 청년부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이번 비전플러스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청년부 생활이 더욱 기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웃음과 은혜가 함께했던 비전플러스가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더욱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 -청년1부 상반기 기도회-



구민지 (청년1부)

지난 5월 1일 금요일, 청년1부 상반기 기도회가 있었다. 약 40명의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기도회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익숙한 본문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은 기쁨과 감동을 허락하셨다.

진윤규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 기준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했던 마음을 돌아봤다. 특히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함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 마음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역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내가 함부로 미워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배웠다.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할 때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마음원들, 함께 사역하는 임역원들 그리고 청년1부 공동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의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서 연결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셨다.

2026. 2월(제50호)
 대마복음통신사(對馬福音通信史)

- 대마도 선교 보고 - 박영철·김강미 선교사



대마은혜교회,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

지난 가을부터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이즈하라 거리가 한국인들로 가득 차서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 북새통을 이룹니다. 한국인 거주자도 이미 180명을 넘어섰고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연안 낚시 환경이 아주 나빠져서 민속집 운영자들이 깊은 시름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사업 비자 자본금 기준이 5백만 엔에서 3천만 엔 이상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기존 분들도 철수를 고민하십니다. 젊은 층의 이주가 미미하게나마 있지만 도시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대마도 인구는 26,366명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대마은혜교회는 주님의 은

혜로 곳곳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을-겨울 낚시 철에는 생업으로 주일 예배 출석이 어려운 교인이 많아 평균 15명이 출석합니다. 최근에 세 분의 일본인 성도가 새로 등록하면서 일본인 등록 교인이 13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적 교인은 총 34명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감격적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8년 전 등록해 꾸준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낚시 박사’ 민병진 씨가 어느 날 아침 눈물을 쏟으며 찾아와 무릎을 꿇고 세례를 청했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성탄과 연말연시에는 100여 가정을 방문해 작은 선물과 달력을 나누며 성탄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예배 처소로 빌려 쓰던 대선월(大船越) 사택이 갑자기 팔려 급하게 새 장소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어

낙심하던 차에, 주님께서 중심지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쿠타에 아주 귀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방회와 총회의 배려, 그리고 교우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모여 잔금을 치르고 기적적으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예전에 노인 복지 시설로 쓰이던 연건평 70평의 2층 건물인데 큰 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에 민가가 없어 교회로서는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1월 18일 드디어 새 예배당에서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올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김치 선교 역시 미쓰시마 문화회관과 이즈하라 교류센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단 대마지부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 그리고 부산 백양로교회 식구들이 배추와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오셔서 멋진 천국 잔치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찾아와 교회의 목은 때를 말끔히 청소해 주고 간 장신대 신학과 ‘담포포팀’ 전도사님들의 땀방울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제 은퇴도 만 3년 남았습니다. 남은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대마도 전역으로 생명의 복음이 뻗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요한 목사

은혜의 문을 여는 심방 가이드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심방’은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다. 특히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올백심방’은 2년에 한 번씩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100% 모든 성도가 심방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뜻깊은 은혜의 잔치다. 하지만 심방 기간이 다가오면 덜컥 부담부터 느끼는 교우들이 적지 않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여유도 없으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은혜로운 심방을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심방의 핵심은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이다. 목회자의 방문은 곧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축복과 위로가 선포되는 시간이다. 화려하게 집을 꾸미거나 진수성찬을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자. 집안 단장이나, 풍성한 다과보다, **주어질 말씀을 사모하는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둘째, 구역장의 연락에는 꼭 응답하자. 심방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구역장들은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며 조심스레 연락을 취하지만, 바쁜

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에 답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구역장들은 혹시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속앓이하곤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확인 답장** 하나가 구역장에게는 큰 힘이 된다.

셋째,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자. 심방은 각 가정의 세밀한 형편과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돕는 시간이다.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고충, 자녀의 진로 문제, 신앙적인 갈등 등을 진솔하게 나누는 용기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와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 굳게 닫혀있던 문제의 매듭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혹,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 심방을 받지 못하고 문고리 심방을 받더라도 가정의 기도 제목은 꼭 구역장에게 전달하여 함께 기도하며 은혜와 감사의 심방이 되도록 하자.

가정의 은혜의 문을 열 기회인 심방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영은교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족을 단단하게 만든 해외 한 달 살기 실전 노하우

- 9년째 해외 한 달 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자녀 교육 이야기 -



양슬기 집사

1. 허황된 꿈 대신 선택한 ‘여행 사교육’

결혼 초에는 아이 교육을 단순하게 생각했다. 영어를 전공했으니 내가 직접 가르치고, 좋은 공연과 많은 책을 읽게 하면 감수성 풍부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부모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 깨달았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찾은 답은 ‘여행’이었다. 여행 중에는 네 식구가 하루 종일 함께한다. 그 시간이 쌓이며 ‘여행 사교육’은 가족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응원하는 단단한 한 팀으로 만들어 주었다.

2. 9년의 여정, 우리는 ‘경험 부자’가 되었다

2018년 큰아이가 8살 때 시작한 ‘해외 한 달 살기’가 어느덧 9년이 되었다. 그동안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등 20개국 54개 도시를 여행했다. 아이들 방학에 맞춰 떠나는 여행은 늘 극성수기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원칙이

있었다. 사교육은 꼭 필요한 것만 시키고, 1년 동안 알뜰하고 똑똑하게 소비하여 경험에 투자할 목돈을 만드는 것이다. ‘해외 한 달 살기’를 통해 얻는 행복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온 가족이 절약하는 습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경험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3. 아마추어 엄마를 프로 가이드로 만드는 여행 준비법

여행지가 정해지면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 10여 권을 빌려 본다. 그중 가장 유용한 책 2~3권을 구입해 정보를 다시 정리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담긴 책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AI 덕분에 여행 준비가 한결 편해졌다. 상황과 목적을 입력하면 일정부터 맛집까지 상세히 알려주니, 올해 스페인·포르투갈 여행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 여기에 10만 구독자 이상의 여행 유튜브 영상까지 참고하면, 아마추어 여행가 엄마도 어느새 프로 가이드가 된다.

4. 항공권 구매 기술, 스톱오버(stopover)³⁾ 활용

여행지가 정해지면 즉시 항공권을 예약한다. 여러 도시를 이동하는 특성상 보통 다구간 항공권을 이용하는데, 유럽 여행 시에는 에티하드 항공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26년 1월 기준, 3개국을 잇는 항공권을 1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는 스톱오버 서비스를 활용해 2박 3일을 여행한 뒤 리스본으로 향했고, 귀국길은 바르셀로나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여행 일정이 길다면 해외 항공사의 스톱오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5. 사진보다 생생한 기록의 힘

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 일상의 분주함으로, 여행지에서의 감각들이 잠들어

3) 스톱오버(stopover): 중간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 이 시간 동안 공항이 있는 지역 안에서 관광할 수 있음.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아이들과 꼭 실천하는 일이 있다. ‘매일 딱 30분’, 그날의 목적지와 음식, 날씨, 사소한 생각들을 적는다. 사진도 좋지만, 생각과 감정을 직접 글로 남기면 여행의 순간들이 훨씬 오래 기억 속에 남는다. 그렇게 쌓인 기록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6. 여행이 남긴 가장 큰 선물

한 달씩 집을 떠나 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보낸 시간만큼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졌다. 외국인 친구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는 아이들 덕분에, 나 역시 현지 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진땀 어린 추억을 쌓기도 했다. 여행이 아이들의 시야와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시작한 ‘해외 한 달 살기’는 넓은 세상을 오감으로 느끼며 가족의 사랑을 깊이 쌓아가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스위스 루체른 리기산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난 스페인 가족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 목사 | 허남기

담임 목사 | 이승구

부 목 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 도 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 동 목 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일심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일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젊은부부 어울림 1부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 소	
영아부	15개월-3세	오전 11:00	
유아부	4-5세		
유치부	6-7세		
유년부	초등 1-2학년		
초등부	초등 3-4학년		
소년부	초등 5-6학년	5층 소년부실	
꿈자람부	4-13세	오후 1:30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3층 비전홀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	